

지역 소식통

민방위 교육 훈련 연기

정읍시가 이달 20일부터 15일간 실시계획이었던 2020년 상반기 민방위 교육 훈련을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5월로 연기한다.

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민방위대 인적 자원 보호와 코로나19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민방위 집합 교육 훈련을 이달 7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은 6월 17일 오전 7~8시(1시간) 각 읍·면·동별로 일제히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민방위 집합 교육 훈련 시 집단 감염과 코로나19 발생 지역 거주자의 교육 훈련 참여에 따른 코로나19 유입이 우려되고 법정부족으로 강력히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달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상반기 민방위 교육 훈련을 하반기로 연기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촌인력지원상황실 운영

고창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인력지원상황실을 전격 운영한다.

7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길현 농수축산경제국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고창군 농촌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 지역 내 일손 수요 조사와 함께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신속하게 연계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상황실은 주요 품목별 농작업·농업인력 수요조사와 지역별 인력수급현황 등을 파악하고 농번기 원활한 인력지원으로 농가의 인력부족을 완화·해소할 계획이다.

군은 4월부터 6월까지 고추·양파 작업과 복분자 수확 등 시기별, 일시적으로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작업에 인력 및 농기계 작업단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고창군 공무원은 물론, 자원봉사단체, 지역 사회·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적극적인 일손돕기 울려에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고창농협과 함께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를 개설해 영농작업 지원을 위한 영농작업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높을고창 실현 온 힘”

취임 100일 맞은 천선미 고창부군수

‘조정·중재·플레이어’ 역할 자처... 현안 해결 동분서주 국비사업 발굴·재정조기집행 등 경제활성화 도려 ‘눈길’

“생각보다 아주 바빴습니다. 금세 100일이 지나갔네요.”

천선미 고창군 부군수가 8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천 부군수는 고창군 최초 여성 부군수로 부임하자마자 국가예산 사업 발굴과 코로나19 대응을 행하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천 부군수는 취임 초부터 2021~2022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발굴과 재정조기집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는 6월이면 반환점을 도는 민선 7기 고창군 부군수의 역할로 ‘조정, 중재, 플레이어’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사업의 완성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조정과 중재를 하고, 때론 직접 플레이어 역

할도 해야 한다”며 “재정 투입 우선순위를 정하고, 과한 진행은 조금 늦추고, 너무 늦은 사업은 본계도에 올려 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창군 지역상권 살리기를 위해 기업체 현장 방문하고 상인회 등과도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다. 천 부군수는 “고창군이 계속 발전하려면 경제가 잘 돌아가야 한다. 현재 고창군 관내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하나하나 풀고,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안을 찾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20여년 넘게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살려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는 등 고창군 현안사업 해결에 발 벗고 나선다는 평을 듣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실제 ‘여성친화 도시 사업계획 수립’과 ‘노인 은퇴자 작업공간 공모사업’, ‘고령 자복지주택 실시 설계 사업’ 등의 사회복지 현안에 방향성을 제시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이끌고 있다.

이에 더해 각종 사업에 대한 직원 결재 때는 부군수라기보다는 공직 선배로서 단순 지시가 아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하고, 적극적인 행정 마인드를 주문하는 등 직원들의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

천 부군수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은 지금 젊은 도시로 발돋움하면서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코로나19를 잘 막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높은고창 실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근호 부안 부군수는 최근 (사)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와 부안공공실버주택 등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한근호 부안부군수, 코로나 예방 현장행정

공공실버주택 현장도 방문

한근호 부안 부군수는 최근 (사)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와 부안공공실버주택 등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는 새로운 건물로 이전에 입주 축하와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인회 회원들에게 안부를 살피고, 경로당 관리에 전염병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공공실버주택 현장도 방문하여 입주민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실버주택 내 복지관과 식당 등 방역조치 및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면역력이 취약한 어르신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수칙과 안전관리에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근호 부군수는 “주로 고령의 어르신 이용자와 입주자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내장천변도로 2.3km 구간 통행 금지

8월 13일까지 4개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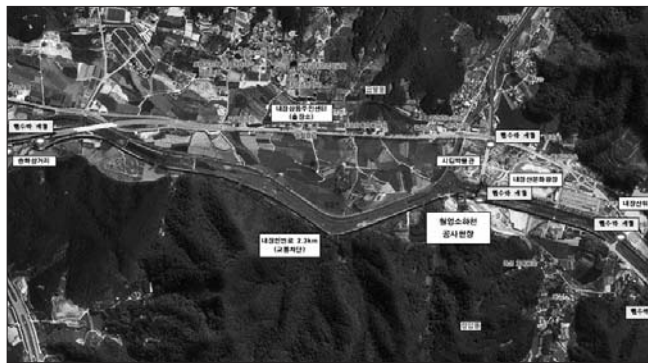
월영소하천 정비공사 일환

정읍시가 이달 13일부터 오는 8월 13일까지 4개월간 내장천변도로 일부구간에 대해 차량 통행금지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시가 추진 중인 교량 접속도로 공사인 ‘월영소하천 정비공사’의 일환으로 월영1교 교량이 높아짐에 따라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부득이 통행금지를 결정했다. 통행금지 구간은 송학삼거리(금봉동 산188-15)부터 월영마을 인근(부전동 1077-2, 시립박물관 앞)으로 약 2.3km 구간이다.

이번 통행금지 시행에 따라 송학삼거리에서 우회전이 차단돼 직진 통행으로 내장산로에 진입이 가능하고, 월영1교에서는 직진이 차단돼 우회전 통행으로 시립박물관 진입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인근 마을 주민분들과 내장산로위터파크, 내장산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시민, 관광객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해당 공사를 조기에 완공해 더 좋은 교통 편의 제공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정읍시가 이달 13일부터 오는 8월 13일까지 4개월간 내장천변도로 일부구간에 대해 차량 통행금지를 시행한다.

정읍시농기센터 “농약사용 주의하세요”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의 시행에 따른 안전한 농약사용 및 작물별 등록된 농약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약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품목별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0.01ppm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마등류 농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미검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국내 사용 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과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농산물은 전량폐기 해야 한다. 또, 출원기와 용도전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생산능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정읍시, 쌀 과잉문제 선제적 대응코자 1년 연장... 6월 말까지

정읍시가 오는 6월 말까지 ‘2020년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쌀 수급 안정과 타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비외에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지원되는 한시적 사업이었으나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올해 1년 연장됐다.

신청 대상 농지는 18~19년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한 농지와 17~19년 중 최소 1회 비 재배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다.

대상 품목은 1년생·다년생 작물로, 무·배추·고추·대파·마늘·양파·감자·고구마는 제외된다.

지원 단가는 1ha당 조사료 430만 원, 일반작물 270만 원, 두류 255만 원, 휴경 210만 원 등 평균 1ha당 29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논에서 생산되는 콩은 전량 정부 구매 예정이고, 조사

료는 자가소비 외 생산 물량을 축협 등 수요처와 전량 사전계약해 판매할 계획이다. 더불어, 타작물 재배 농가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사업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이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유통과(☎539-622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내실화를 위해 쌀 생산 조정추진단을 구성하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이·통장 회보, 각종 리플릿 등을 통해 농업인에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쌀 과잉해소와 발작물 자급률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정읍시는 548농가 총 483ha(조사료 162ha, 일반작물 55ha, 두류 266ha)를 신청받아 17억 5천 2백 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379ha 대상 12억 8천 7백만 원을 배정받아 사업을 접수중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